

## 6 장\_녹색제주연구소

# 유배문화 해설사, 그들이 들려주는 제주도 이야기

### 유배문화 기행을 떠나다

일요일 아침, 늦가을 정취가 가득한 공원 광장에는 중학생부터 머리가 하얀 멋쟁이 할머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문화 기행을 떠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소풍이라도 가는 듯 활기에 넘쳐 있는데, 어른들은 작은 공책을 들여다보시며 긴장된 표정으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들이 지난 여름부터 땀땀한 일정 속에 토론과 연구를 거듭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온 예비 유배문화 해설사입니다.

오늘 유배문화 기행단은 중학교 학생 100 여 명입니다. 유배문화 해설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인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은 알차면서도 재미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예비 유배문화 해설사들은 바짝 긴장한 표정이지만, 지난 몇 달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으니 문제없이 훌륭한 해설을 보여줄 겁니다.

### 묻혀져 있던 제주도만의 이야기

제주도는 조선 500 년 동안 수많은 지식인들이 정치적 추방과 격리를 당한 우리나라 최대의 유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섬 전체가 살아있는 유배문화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배인들이 나날이 늘어나 마치 섬 전체에 가득 찬 것 같아 제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한탄한다.”

이 글은 운양 김윤식이 구한말에 제주도에 유배와서 지은 <속음정사 續陰晴史>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속음정사에는 제주도의 가장 큰 민란 중 하나인 ‘이재수의 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당시 제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배인들 중에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제주도에 끼친 문화, 예술, 역사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고, 이를 알아야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점들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니다.

당대의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제주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제주도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정 지역에 아주 작은 규모로 건립된 추사 적거지 외에는 제주도 유배문화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역사적인 의미도 알 수가 없었죠.

다행히도 최근 들어 조금씩 제주 유배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들이 제주도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내 학계 인사들과 유배인의 후손들이 유배문화조명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 유배사를 편찬한다든지, 유배문화관 건립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적 기반, 자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이

제주만의 독특한 유배문화를 설명해주거나 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주문화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 유배문화를 설명해 줄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 **유배문화 해설사 되기**

유배문화 해설사 양성은 제주도의 이런 유배문화 유적지와 유산을 문화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할 작업이었습니다. 양성 과정은 사회의 연장자들에게는 문화자원 개발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장년층의 문화예술교육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모집 공지가 나가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지원자들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40 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해 7 월부터 시작한 교육과정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는 기본이고, 스피치 교육에 원고 작성 훈련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강의만 하더라도 일방적인 수업식 강의를 아니라 자료를 스스로 찾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었고 집중적인 탐구도 병행했습니다.

현장 기행, 평가 워크숍, 해설 연습이 끝나자 5 명이 한 조가 돼서 자신들이 연구한 유배자와 유배지에 대해 함께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해설시간이 20 분을 넘지 않도록 원고는 짧게 준비돼야 했습니다.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원고를 만들기 위해 수강생들이 의견을 모으고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모두들 녹초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더욱이 ‘3 회 이상 결석할 경우 수료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배문화 해설사가 되는 길은 힘들었지만, 모두가 95%의 출석률을 기록하며 열의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유배문화기행 시범해설사업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 **‘유배문화’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제주도의 학술단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된 지식인은 200 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학자나 정치인은 모두 49 명이었다고 합니다. 유배를 오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나게 되지만 오히려 학자로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저술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배인들은 주로 독서를 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거나 제주도 사람들을 불러모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귀양 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훑어지고 배우려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문채 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완당선생전집>에 실린 문장입니다. 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유배인들은 제주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정신적, 문화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 유배문화를 발굴하고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유배문화 해설사로 데뷔하다!**

오늘 유배문화 기행은 총 5 회의 시범 해설사업 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100 여 명의 중학생들을 모두 7 개의 팀으로 나누어 연복정과 오현단, 조설대 등 모두 7 곳의 유적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네 번의 시범해설 기회를 통해서(삭제) 유배문화 해설을 경험한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식을 치르게 된 7 명의 예비 해설자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당연히 새하얀 머리와 주름진 얼굴이지만, 밝은 표정만큼은 중학생 아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즐거움이었지만,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원고를 교정하고, 발음과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또한 큰 수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화를 제대로 수용하는 방법과 함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는 자랑도 잊지 않으십니다. 제주 유배문화기행의 큰 성과는(사회문화교육의 성과는-삭제)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넘치는 그 분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도 커서 내 아이들에게 저런 지적이고 멋진 해설을 해주고 싶어요.”**

오현단에 도착하자 예비 해설사의 해설이 시작됩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학생들 앞에서 오현단 이야기를 시작한 해설사의 얼굴에는 조금씩 여유가 피어 오릅니다. 이동 중에는 마냥 웃고 떠들던 학생들도 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곳 한 곳 유적지를 이동하면서 학생들의 자세는 더욱 진지해집니다. 해설사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는가 하면,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성적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은 무척 열심히입니다. 학생들의 그런 반응에 해설사는 더욱 더 즐겁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기운을 냅니다. 기행이 끝난 후, 유배문화 시범해설 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적어낸 소감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도 커서 내 아이들에게 저런 지적이고 멋진 해설을 해주고 싶어요. 해설사 할머니 파이팅!”

이제 제주에 가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 외에도 제주에 숨겨진 역사의 의미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제주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멋진 유배문화 해설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유배문화유적지에서 진행된 <제주 유배문화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녹색제주연구소